

조선소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발성신경병증

 성별
 남
 나이
 57세
 직종
 도장공
 직업관련성
 높음

1 개 요

한○○은 D사에 1987.4. 입사하여 도장부서에 근무하던 중 2000.6.24. 작업 중 사고로 우측 안면신경마비,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장해진단을 받은 후 사지 통증 등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결과, 다발성신경병증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한○○은 1983~1987년까지 D사 협력업체에서 붓도장, 소지, 배합, 스프레이 등을 했고, 1987년 D사 입사 후 선행도장부에서 주로 배합을 했으며, 스프레이, 붓도장, 소지작업 등도 가끔 하였다. 작업 중 도장용 두건은 착용하지 않았으나, 면장갑과 방독마스크는 착용하였다. 도장부서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는 크실렌, 톨루엔, 메틸에틸케톤, 메틸이소부틸케톤 등이 검출되었으며, 1997에는 핵산과 메틸부틸케톤도 검출되었다. 도장부서의 혼합유기용제 평균 노출수준은 0.03에서 4.62로 다양하게 나타났다.

3 의학적 소견

한○○은 담배는 31년 동안 17개피 정도를 피웠고, 음주는 부상 전까지는 소주 3잔이하, 부상 이후에는 1잔의 반주를 매일 마셨다. 입사 전 까지 병, 의원을 방문한 적

이 없고, 장기간 약물복용 경력도 없다. 결핵, 당뇨,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이환 된 경력도 없다. 도장작업을 한 지 10년경부터 작업이 많으면 간헐적으로 이상감각이 있 어왔으며, 1996년에는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. 2000년 6월 부상당한 안면부위 뿐 아니라, 사지에 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사결과 다발성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되었 다. 벼농사에 종사해 오다. 1983.2.부터 D사 협력업체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했으며, 1987.4부터 D사 도장부서에 근무하였다.

4 결 론

한○○의 다발성신경병증은

- ① 1983년부터 도장작업 중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다가, 2000년 전신성 감각운 동성 다발성신경염으로 확진되었는데,
- ② 선박도장작업중 복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온 근로자에서 유기용제 노출 에 의해 다발성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,
- ③ 사지 말단부위의 감각신경을 주로 침범하였고, 신경 축삭의 변성으로 나타나, 감염이나 유전성질환 등에서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였으며, 유기용제에 의한 다 발성신경병증의 경과와 유사하며,
- ④ 당뇨병, 갑성선질환, 신질환, 악성종양 등 다발성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 른 질환들이 없었고, 알콜중독, 영양결핍, 약물중독 경험이 없었으므로, 도장작 업시 노출된 유기용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.